



2026 VISION

훈훈한 구역, 함께 키우는 아이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옴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장 9절]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말씀

요즘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공부도, 관계도, 신앙도 완벽하게 하기보다는 적당히 하려는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들을 때도 “이건 해도 되고, 이건 안 해도 되겠지” 하며 선택적으로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도 혹시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 중요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말렉을 치고 그 모든 것을 남기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명령을 완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좋은 양과 소를 남기고, 왕 아각도 살려 두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는 지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의 행동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변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둔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어떤 행동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는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사울은 결국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웠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도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건 좀 어려운데...”, “이건 나중에 할게요” 하며 미루거나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과 순종을 보고 계십니다. 작은 순종 하나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이 되길 바랍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예배 순서

사도신경 다 같이

찬송 주와 함께 걸어가네 다 같이

말씀봉독 사무엘상 15:10~35절 다 같이

설교 순종은 부분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설교자

말씀나눔 다 같이

합심기도 다 같이

축복기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기도문 다 같이

- ★ 찬송과 공동 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찬양



주와 함께 걸어가네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순종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처럼 내 생각을 앞세우며 부분적으로 순종했던 모습을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작은 것부터라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나눔

1. 사울 왕은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행동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2.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선택적으로 따르거나 미루는 부분이 있나요? 오늘부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